

다윗 이야기

⑪ 언약궤를 옮겨라



나 레 이 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거처를 옮깁니다. 다윗왕이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.

다 윷 이보시오, 하나님의 궤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옮겨 옵시다.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이곳으로 옮겨 나라의 중심으로 삼읍시다.

나 레 이 셴 여기서 잠깐! 다윗왕이 옮기려는 '하나님의 궤'가 뭘까요? '하나님의 궤'란,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만든 것으로서,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넣어 보관했던 함을 말합니다. 다른 말로는 '언약궤' 또는 '법궤'라고도 불린답니다.



바로 이 '하나님의 궤'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. 그래서 이 약속 이후로 언약궤가 있는 곳은 '하나님이 계신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.'라고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.

즉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. 다윗왕이 왜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알겠죠?

나 레 이 셴 드디어 기랴여아림(바알레유다)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다윗왕과 신하들이 모였습니다.

다 윷 여봐라! 특별히 제작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라. 그리고 풍악을 울리며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하여라!

신 하 들 예, 전하.

나 레 이 셴 기랴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는 특별히 제작한 새 수레에 실려 옮겨지고 있었고, 이 수레 곁에는 그 집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던 도중에 갑자기!





소 (소가 날뛰며 거친 울음소리를 낸다) 음매에!!!
야 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이 소가 왜 이러지?
웃 사 어!! 어!! 이러다가 언약궤가 떨어지겠어! 안돼!
(언약궤에 손을 대었더니) 헉!! 으.....
사 램 들 아니...?! 허.... 이럴수가... 웃사가 죽었어.
여 인 웃사가 죽었다구.
노 인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어!

.....

나 레 이 션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으므로 다윗왕은 너무도 두려워서
하나님의 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모두 예루살렘으로
돌아갔습니다.
나 레 이 션 그리고 언약궤는 그곳에 가까이 있는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
두었습니다.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
하나님께서 오벰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.